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 전문기관 KCA

경영혁신으로 국민생활 안전 선도

CHECK POINT

- ✓ 5년 연속 사업장 산재사망사고 Zero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 ✓ ‘대한민국 전자파 안전관리’ OECD 공공혁신 사례 선정
- ✓ 국내 최초 ‘전자파 신호등’ 개발 및 전국 설치
- ✓ ‘소형 전자파 측정기’ 대국민 무상대여 서비스 실시
- ✓ 국내 유료방송사 대상 ‘재난저막 자동 송출시스템’ 전국 확산



방송·통신·전파 분야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CT 전문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1972년 사단법인 한국무선전자협회로 설립되었으며, 2011년 지금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확대개편되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광역시 중심의 9개 지방본부, 그리고 제주 등 67개의 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무선국 검사, 전자파 강도 측정 등을 통해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전파품질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ICT 분야 27종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우수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우수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기획·개발, 미디어 현지화, 제작 지원 등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약 3조 원 규모의 ICT 기금인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로 디지털 ICT 정책실행과 산업활성화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안전 보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재난·사고로부터 누구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방침 선포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신인법·중차법 반영 규정 강화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장이 직접 안전보건방침을 선포하고, 전국 사업장에서는 안전 업무 책임제 도입과 안전문화 체계 강화를 통해 산재사망사고 5년 연속 0 재해를 달성했다. 이에, 2023년 대한민국 소통대상 안전보건 부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기관의 전파 분야 역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민안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휴대전화 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형 전자파 측정기를 국민 약 3000명에게 무상대여하고 있다. 또한 전자파로 인한 집단문제가 발생하는 아파트 등에 실시간으로 전자파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파 신호등을 전국 8개 지점에 설치하여 입주민에게 객관적인 전자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홍수,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자동으로 자막이 송출되는 재난저막 자동 송출시스템을 국민 3100만 명이 가입한 14개 유료방송사에 적용하여, 국민이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CEO INTERVIEW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기관 최초로 2024 대한민국 혁신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 확대, 방송통신전파 진흥에 기여’라는 미션 아래 무선국 검사, 전자파 강도 측정으로 대한민국 전파품질을 관리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는 등 방송·통신·전파 분야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 체감 서비스 실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ICT 전문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도 ICT 전문가로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